

투데이 칼럼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 그들에게 숨통 틈워야

**대**한민국은 소상공인의 나라다.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도 소상공인이 많은 나라다. 직장도 그만두면 프랜차이즈 통닭집이라도 차려 가족과 근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압박관력이 만연해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규정한다.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동네 식당, 미용실, 문구점, 분식집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만 1천 개, 종사자는 955만 1천 명에 이른다. 기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6명. 이 숫자는 소상공인이 곧 가족의 노동, 1인의 생계, 한 가정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거대한 숫자 뒤에는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이 쌓여가고 있다.

요즘 전주새 골목을 걸다 보면 상가 간판마다 '임대', '매매' 현수막이 더 눈에 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이고, 조금 외진 곳으로 가면 연이어 여러 곳이 한꺼번에 문을 닫았다. 공시 통계에 잠깐 것만 18%가 넘는다.

"그래도 장사가 된다"던 전복대박 교 구정문 인근 상가조차 빈 점포가 늘고 있다. 전주 관동로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골목의 불이 하나둘 꺼질수록 사람들의 발걸음도 줄어든다. 그리고



이만호 본보 정치부장

그 적막은 다시 매출 감소로 돌아와 남은 가게의 숨통까지 조인다. 이것이 지금 골목상권이 빠져 있는 악순환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소비의 급속한 확산, 초고속 유통 시스템은 소비자에게는 편리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위기다. 가격 경쟁은 이미 불가능해졌고, 시간과 노동력을 더 쏟아도 따라잡기 어렵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소비 트렌드의 변화만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이 버티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코로나 이후 누적된 빚, 그리고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

코로나 시기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폐업을 마무리하며 버틸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자금은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었다. 거치기간이 끝난 지금, 원금과 이자가 동시에 돌아오고 있는데 장사는 회복되지 않아 업주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장사

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빚 갚는 시기는 왔습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이 귓가를 때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 폐업자가 곧 100만 명에 이른다"며 "이것은 말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이 결국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소상공인 정책은 현저하게 다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홍보되었지만, 실제로 신청해 본 소상공인들 상당수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탄한다.

코로나 당시 정책자금을 한 건이라도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현재 정책자금 신청에서 제외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성실하게 갚아온 이들이 오히려 혜택에서 밀려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성실한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본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과 4대 보험 부담은 소상공인의 인건비 구조를 무너뜨렸다. 종업원을 쓰는 순간 적자가 된다. 결국 많은 가게가 가족경영으로 돌아섰다. 몸이 부서져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이 나와 일한다.

그마저도 버티지 못한 가게들은 이미 폐업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삶의 기반을 잃었다. 이는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의 결과다.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다. 기존 대출이 있더라도 일정 기간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를 통해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의 유동성 지원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은행에서 소상공인들의 그간 이자 수익으로 매출을 많이 올렸으니 자발적으로 가게당 1천여만 원 정도씩이라도 대출액을 더 늘려주어 달라고 소상공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골목이 무너지면 다시 살리는 데는 훨씬 더 큰 비용이 든다. 지금 소상공인에게 쓰는 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지역에서 돌고 도는 투자다. 소비는 세금으로 돌아오고, 골목이 살아야 지역도, 국가도 산다.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방법을 찾고 공존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하여 같은 국민으로 살아가야 할 때다.

사설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하는 극우세력 현수막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자, 혐중 정서를 퍼뜨리려는 세력들이蠢蠢데고 있다.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나 중국인 혐오 표현을 담은 현수막도 거리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철거할 길이 없다고 한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광 아닌 절령'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다른 곳에는 '부정선거 주범을 수배한다'는 내용도 보인다.

망상적 부정선거론과 중국 배후론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것이다. 현수막에 나온 QR 코드는 극우 성향 유튜브의 링크다.

가로 6m, 세로 90cm 짜리 현수막에는 '트럼프·푸틴도 언급한 부정선거'라 쓰여 있다. 조직적으로 달려고 만든 홈페이지도 있다.

선풍한 문구도 눈에 띈다. 이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단체 소속

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혐중 시위에서도 이 단체 현수막이 보인다.

홈페이지 운영자는 유튜브에 나와 정당 이름을 언급한다. 선관위에 등록된 주소지에 가봤다. 해당 정당과 관계없는 사무실이다. 당명 빌려주고 현수막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현수막 정치'라고 했다.

'현수막 정당'의 길을 터준 건 거대 정당들이다. 혐오와 음모의 현수막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 셈이다. 선관위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조항에 따라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삼아 철거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여당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조건을 원내 정당 등으로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우주기업이 개발한 '한빛-나노' 발사체

국내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462350)가 개발한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가 첫 상업용 발사에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누리호'가 정부 주도의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해 성과를 낸 사례라면, '한빛-나노'는 국내 기업이 독자 개발한 발사체로 상업 미션에 나선 첫 시험대였다.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전환을 상징하는 무대였던 만큼, 이번 실패는 아쉬움이 많다.

발사체는 12월 23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뒤 약 30초 후 기체 이상이 감지되며 비상 안전구역 내로 낙하했다. 회사는 충돌 과정에서 인명 피해나 2차 피해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로 수행한 첫 상

업 미션 '스페이스 워드(SPACEWARD)'로, 소형위성 5기와 실험용 장치 등을 탑재했다. 목표는 고도 약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 투입이었다.

발사체는 정상 이륙해 수직 비행을 시작했고 1단 25톤급 하이브리드 로켓엔진도 정상 점화해 계획된 비행 구간을 수행했다.

이번 발사는 목표한 최종 결과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실제 비행에 서만 얻을 수 있는 비행·추진·운용 데이터가 성공적으로 수집된 점은 중요한 성과다.

해당 데이터는 지상 시험이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확보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보완과 추가 검증은 신속히 진행한 뒤, 충분한 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상업발사에 다시 도전하기 바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그린란드 입도한 덴마크 군인들



18일(현지 시간) 덴마크 병사들이 그린란드 누크 항만에 도착해 배에서 짐을 내리고 있다.

세네갈, 모로코 꺾고 네이션스컵 우승



세네갈 선수들이 18일(현지 시간) 모로코 리바트의 프린스 몰레이 압델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정상에 올라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